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세계명작!

청소년
세계명작
선정

아라비안나이트

최리화, 남금월 편역



연변인민출판사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세계명작!

아라비안나이트

최리화 남금월 편역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최향화

책임교정: 김 영

图书在版编目(CIP)数据

一千零一夜/ 崔梨花, 南今月编译.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6. 9

ISBN 7-80698-771-1

I. 一... II. ①崔... ②南... III. 民间故事—作品集—阿拉伯半岛地区—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371.73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6) 第115339号

一千零一夜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图们市书文彩色印刷有限责任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6.375 字数: 100 千字

标准书号: ISBN 7-80698-771-1 / I · 109 (民文)

版次: 2006年9月第1版

2006年9月第1次印刷

印数: 1-1000册

定价: 14.8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교육부에서 추천한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세계명작가운데서 엄
선하여 만든 연변인민출판사 청소년
교양도서는 청소년들에게 세계명작속에
담긴 여러 나라의 문화와 지혜를 일깨
워주고 리해력, 어휘력, 문장력과 상상력
을 길러줄뿐만아니라 청소년들로 하여금
책을 읽는 기쁨을 찾게 해줄것이며 청소
년들의 앞날을 밝혀주는 등대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쑥쑥
커갈것입니다.

책꽂이에 없어서는 안될 도서들: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세계명작!

《동물농장》

《오즈의 마법사》

《탈무드》

《늑대소년 모글리》

《플랜더스의 개》

《마지막 잎새》

《로인과 바다》

《아라비안나이트》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킷독서!

《세계의 발명발견이야기》

《두뇌를 좋게 해주는 도전 700 수수께끼》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노벨수상자들의 학습이야기》

《중국아이들이 뽑은 301가지 궁금증》

《윤동주대표시 해설과 감상》

작품안내

《아라비안나이트》는 중세기 아랍인민들의 집단적인 지혜에 의하여 오랜 기간 창작되고 윤색된 이야기들을 집대성한것으로서 그 내용의 풍부성에 있어서나 강렬한 예술적매력에 있어서나 세계문학보물고에서 이채를 띠고있습니다.

《아라비안나이트》는 14~15세기에 완전히 글로 씌여져 현재까지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있으나 그것의 원형들은 훨씬 이전 시기인 9~10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매개 이야기들은 이야기집에 들어가기전에 서로 유기적인 연계가 없이 자립적으로 존재하였습니다. 이야기의 자료들은 아랍에서 생긴것도 있고 인도에서 생기여 이란을 거쳐 아랍에 들어온것도 있습니다. 인도에서 생긴 이야기들은 아랍에 들어온 다음 본래의 내용이 적지 않게 변화되고 아랍특질이 거기에 첨가되여 아랍문학화되었습니다.

옛날 어느 포악하고 횡포한 페르샤왕 샤리아르가 왕비의 부정행위를 발견하자 그녀를 죽여버리고 매일 한 너자씩 새 왕비로 맞아들이고 하루가 지나면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한 높은 신하의 딸 사라자드가 자진하여 왕비로 들어가서 첫날밤부터 매일 왕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재미있는 대목까지 이야기하고나면 날이 밝군 하였습니다. 이야기에 푹 빠져든 왕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싶어서 사라자드를 죽이지 않고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계속하여 이야기를 듣다가 결국 화를 풀고 참회하면서 사라자드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천하루밤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하여 이 이야기를 《천하루밤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책》이라 불리는 《천하루밤이야기》에는 180여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本書에서는 7가지 이야기만 골라서 묶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에는 재미뿐아니라 삶의 지혜와 풍부한 교훈이 담겨져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흥미진진한 모험이야기와 위기때마다 신기하게 펼쳐지는 마법의 세계는 청소년들을 꿈과 환상의 나라로 데려다줄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청소년들에게 리해력, 어휘력, 문장력, 상상력을 길러주며 청소년들로 하여금 열독에서 오는 새로운 기쁨을 찾게 해줄것입니다.

차 례

작품안내

하늘을 날아다니는 양탄자

- 1) 세 왕자..... 1
- 2) 생명의 사과..... 9
- 3) 바위속의 궁궐..... 15
- 4) 신하의 모함..... 18
- 5) 손바닥안에 들어가는 천막..... 22

신드바뜨의 모험

- 1) 같은 이름을 가진 두사람..... 32
- 2) 섬인줄 알았던 고래등..... 36
- 3) 다이아몬드골짜기..... 44
- 4) 괴물들이 사는 마을..... 51
- 5) 식인종마을..... 59

알리바바와 40명의 도적

- 1) 《열려라, 참깨!》..... 67

- 2) 굴속에 들어간 카심····· 75
- 3) 독안에 든 도적····· 80
- 4) 춤추는 물자나····· 86

알라딘의 요술등잔

- 1) 땅속에 난 굴····· 91
- 2) 등잔의 하인····· 99
- 3) 임금님을 찾아간 어머니····· 103
- 4) 다시 나타난 마술사····· 105
- 5) 되돌아온 공주····· 109

어린이재판관

- 1) 금돈을 담은 단지····· 112
- 2) 아이들의 재판놀이····· 123
- 3) 공정한 재판····· 130

하늘을 나는 목마

- 1) 사라진 왕자····· 134

- 2) 나하르공주..... 138
- 3) 목마를 타고..... 143

어부와 마귀

- 1) 바다속에서 나온 이상한 항아리..... 155
- 2) 왕과 의사 두반..... 169
- 3) 이상한 물고기..... 178
- 4) 벽에서 나온 여자..... 182
- 5) 네 언덕으로 둘러싸인 호수..... 186
- 6) 검은 섬의 왕자..... 192

하늘을 날아다니는 양탄자



1) 세 왕자

옛날 인도에는 한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님은 맏아들 후세인과 둘째아들 알리 그리고 막내아들 아메드라는 세 왕자와 누로니할이라는 아름다운 조카딸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임금님은 이웃나라와 친해지기 위하여 누로니할공주를 이웃나라 왕자에게 시집보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런데 세 왕자는 모두 공주를 사랑하고있었기에 이 일을 반대해나섰습니다. 임금님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사촌간이나 조카하고도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으므로 왕자들중 한명은 공주와 결혼할수 있었기때문이었습니다..

어느날 임금님은 세 왕자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여행을 떠나라. 너희들중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것을 구해오는 사람과 누로니할공주를 결혼시키겠다. 그러니 지금부터 1년동안 어느곳에 가서든지 세상에 둘도 없는 값진 보물을 찾아오너라.》

다음날 왕자들은 장사군으로 변장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루종일 길을 걷던 세 왕자는 해질무렵 세갈래 길 이 나타나자 주막에 들러 의논했습니다.

《같이 다녀도 소용이 없으니 여기에서 헤어지자.》

《그래요, 형님. 1년후에 우리 이 주막에서 만나 함께 돌아가자요.》

이렇게 약속하고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말아들 후세인은 전부터 많은 소문을 들었던 비스나라는 나라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다행히 그곳으로 가는



상인들을 만나 석달만에 비스나에 도착하였습니다.

후세인왕자는 많은 가게들을 둘러보며 신기한 물건을 찾았습니다. 어느 가게앞에 도착한후 지쳐서 좀 쉬었다가 가려고 서성거리고있을 때였습니다.

《자, 하늘을 날수 있는 양탄자가 있습니다. 금화 4천냥에 팝니다.》

거리에서 큰소리로 웨치며 지나가는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후세인왕자는 그 사나이를 불러세워 그 양탄자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진짜로 하늘을 날수 있단 말이요?》

《예, 이 양탄자에 올라앉기만 하면 어디든지 마음대로 날아갈수 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신기한 양탄자 올리시다.》

후세인왕자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이 양탄자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신기한 보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시험해보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요?》

《못믿겠으면 여기 앉아보십시오. 여기서 당신이 목고계신 곳까지 모셔다드리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금화 4천냥을 주시면 이 양탄자를 드리겠습니다.》

《종소.》

사나이는 양탄자를 펴고 그우에 후세인왕자를 태웠습니다.

《양탄자야, 려관으로 가자.》

사나이가 말하자 양탄자는 불 하고 하늘을 날아올라 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후세인왕자가 묵고있는 려관까지 날아갔습니다. 후세인왕자는 매우 기뻐 얼른 금화 4천

냥을 주고 양탄자를 샀습니다.

《이 양탄자를 가져가면 틀림없이 누로니할공주를 안 해로 맞이할수 있을거야.》

후세인왕자는 그 양탄자를 타고 비스나를 떠나 형제 들과 만나기로 한 인도로 날아갔습니다.

한편 둘째아들 알리왕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갔 습니다. 그는 넉달만에 페르시아의 수도에 도착하여 장터 로 달려갔습니다. 알리가 이것저것을 구경하고있을 때 한 사나이가 큰소리로 웨치며 다가왔습니다.

《자, 요술망원경이요. 무엇이냐 보고싶은대로 볼수 있는 요술망원경! 금화 4천냥이요.》

알리왕자는 사나이에게서 망원경을 받아 자세히 보 니 상아로 만든 원통이였습니다.

《겨우 코끼리이발로 만든 장난감이 금화 4천냥이라 니요?》

《어디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보고싶은것 은 다 보여주는 신기한 망원경이랍니다.》

알리왕자는 사나이에게서 망원경을 받아 눈에 대보 았습니다.

《아, 보인다! 정말 보이네!》

알리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왕좌에 앉아 누로니할공주와 얘기를 나누고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건 참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신기한 물건이다. 이것만 있으면 공주는 틀림없이 내 안해로 될것이다.》

알리왕자는 금화 4천냥을 주고 요술망원경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인도에서 온 상인들과 함께 약속장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셋째아들 아메드왕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